

4대강 살리기 그 첫 삽을 뜨다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친환경 경제성장을 표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12월 첫 삽을 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한민국 녹색성장 백년 대계의 출발점이다.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4대강의 미래를 들여다보자.

글 이상철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홍보기획팀 사무관

4대강 살려 기후변화 대비

정부는 녹색뉴딜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다. 2008년 12월 지역발전 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를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2009년 4월 27일에 정부가 합동으로 중간성과를 보고했다. 이후 4대강 인근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설명회를 열었으며, 관계부처와 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얻은 후 물환경학회·수자원학회 등 관련 학회의 토론회와 전문가 및 시민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 지구적 해결과제인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인류는 기후변화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

기후변화에 맞선 신성장 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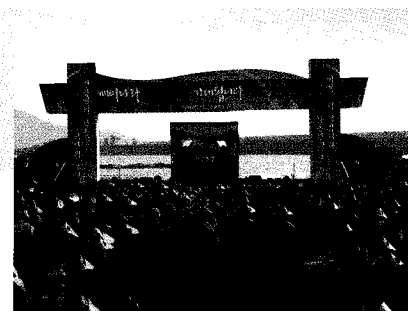
오늘날 인류는 기후변화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 기후변화는 21세기 글로벌 이슈의 하나이다. 2009년 12월 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192개국 1만 5천여 대표가 참여한 것도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증명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는 가뭄과 홍수 같은 이상 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여름은 유난히 아시아 지역에서 대형 자연 재해가 기승을 부렸다. 제8호 태풍 모라꼿이 대만과 중국을 휩쓸면서 대만에서는 68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중국에서는 16명이 사망했다. 또 제16호 태풍 켈사나가 필리핀을 강타하여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고 산사태가 발생해 497명이 사망했다. 특히 대만의 경우 8월 7일부터 3~4일간 3,000mm 이상의 비가 내려 전대미문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유엔환경계획은 지난 2003년 물부족과 지구 온난화를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선언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30년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39억 명이 물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계절별 강우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제 물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른 시설에 비해 하천 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다.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등 사회 간접자본은 선진국 진입에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1999~2008년) 도로에 77.9조원, 철도에 36.4조원을 투자했던 것과 비교할 때 하천에는 8.8조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해 후진적인 홍수와 가뭄 피해가 반복되어 최근 5년간(2002~2006년) 전국적인 연평균 홍수 피해액이 2.7조원이며 그에 따른 복구비가 4.3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아울러 각종 오·폐수의 방류 등 열악한 하천 환경은 시급한 현안 과제로 떠올랐다.

그 결과 우리의 하천은 국민에게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으며 문화와 레저를 제공하는 쉼터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하천과 함께해 온 유구한 세월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관광지 하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러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녹색뉴딜의 핵심 사업이다. 이는 가뭄과 홍수 피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재해 예방 사업이며 더 나아가 수질과 생태를 복원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문화 사업인 것이다.



문화의 강으로 새롭게 태어나다

우리 정부는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향후 물부족(2011년 8억m³, 2016년 10억m³)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보 설치, 농업용 저수지 증고, 중·소 규모 댐 건설 등을 통해 총 13억m³의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고자 한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을 추진함으로써 총 9.2억m³의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셋째,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녹조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2012년까지 본류 수질을 평균 2급수(BOD 3ppm 이하) 수준으로 개선하고, 생태하천(780km) 및 습지 조성,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할 것이다.

넷째, 총 1,728km의 자전거 길을 조성해 강을 활용한 새로운 여가 공간을 창조하고 유람선을 운행하는 등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의 기반을 다질 것이다. 또한 지역 상징물을 설치하는 등 고품격 문화관광지를 조성하고, 축제와 공연을 유치해 지역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다섯째, 안동(유교), 공주·부여(백제), 춘천(레저) 등에 특화문화 관광 거점 육성, 옛 배길 복원 등 강 중심의 관광자원을 발굴할 것이다. 특산품, 자연자원 등을 연계한 '테마가 있는 금수강촌'을 조성하여 체험·휴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활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존 도시를 강 살리기와 연계하여 정비함으로써 활력 있고 매력 넘치는 삶의 터전으로 재창조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본적으로 본류와 지류 하천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할 계획이지만,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4대강 본류 및 주요 지류(지방하천 포함)를 우선 정비할 것이다. 본 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하고 댐 및 농업용 저수지와 직접 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완료하며,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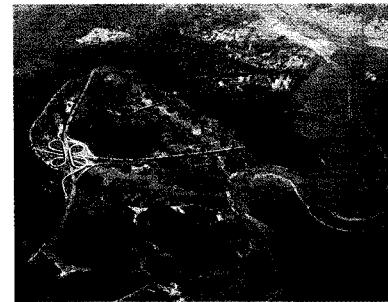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4대강 유역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강 중심의 문화·관광자원 개발 등 국토 재창조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새롭게 단장되는 강과 주변 둔치의 생태공원을 통해 '관광·레저·문화 산업의 발전'이라는 2차적인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이 다양한 생태·수변 문화를 즐기므로써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그동안 인류 역사와 문명은 강에서 태동되었으며, 예부터 강을 잘 다루는 민족이 강대국으로 발전하였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에서 새로운 선진 한국의 미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꿔 나가하고자 하는 역사적 사업으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끄는 녹색뉴딜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홍수·가뭄·수질 등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생태·레저·문화의 삶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Before
한강 방절저류지
After



Before
금강
After

